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제13차 회의록

2017. 10. 20.

## I. 회의개요

- 일 시 : '17. 10. 11(수) 08:30 ~ 12:00
- 장 소 : 공론화위원회 사무실
- 출석위원(7명)
  - 주재 : 김지형 위원장
  - 참석 : 김영원·김원동·김정인·이윤석·이성재·이희진 위원

## II. 상정안건(총 3건)

- (1-18, 의결) 시민참여단 종합토론회 실행계획(안)
- (2-33, 보고) 제11차 회의록
- (2-34, 보고) 제12차 회의록

### III. 의안 심의

- (000위원) 제안이유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를 위해 선정된 시민참여단에게 최종 숙의프로그램을 제공함과 동시에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재개에 대한 최종조사를 실시하고자 다음과 같이 종합토론회 실행계획(안)을 제안하고자 함

행사개요는 2017년 10월 13일 금요일부터 15일 일요일까지 2박 3일간 진행되고, 장소는 교보생명 계성원에서 시행될 예정임. 참여인원은 총 650명임. 주요 일정은 13, 14, 15일 간 13일에는 3차 조사를 실시한 다음에 개회식을 진행하고, 분임별 인사 및 토의를 진행하고, 총 4개의 세션으로 구성해서 14일에는 제1세션과 제2세션에서 총론토의와 쟁점토의가 진행되고, 저녁시간에 건설현장, 지역주민, 미래세대 의견을 공유하고자 함. 이후에는 세션 1, 2에서 보충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것임. 15일에는 세션 3, 4를 운영해서 쟁점 토의와 마무리 토의를 진행할 예정이고 마지막 4차 조사를 실시한 후 폐회식을 진행할 예정임

시민참여단 수송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음. 버스기사 외 인솔자 1명을 추가로 배치하고, 인솔자는 참가자 버스 탑승 시 명단을 확인하고 참석자 도착 여부를 종합상황실에 전달할 예정임. 셔틀버스 운영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음. 셔틀버스 탑승 시 운영팀장의 참가자 명단 확인 후에 탑승을 진행할 예정임. 셔틀버스 운행시간은 사전 안내해서 개별참가자의 편의를 제공할 예정임

주차 계획임. 사전 등록된 내·외빈 및 스텝차량만 계성원 내부주차장을 이용하도록 하고, 단체버스 및 셔틀버스는 참가자 하차 후 바로 각 지역으로 이동해서 시행할 예정임. 자차 이용자 및 프레

스는 공원 주차장에 주차 후 셔틀버스로 이동할 예정임. 10월 15일 귀가 시에서 2시까지 단체버스 주차장으로 도착하고 귀가버스 순으로 계성원으로 대기 안내할 예정임

참가자 접수 계획임. 운영시간은 14시부터 20시까지 진행될 예정이고, 20시 이후 등록대를 철수한 이후에는 1층 종합상황실에서 처리할 예정임. 객실안내계획임. 운영시간은 16시부터 17시 30분이고 스텝 숙소가 배치되어 있는 6, 7층을 제외한 2층에서 5층까지 엘리베이터 앞에 스텝을 배치하여 동선을 안내할 예정임

비전홀 운영계획임. 시민참여단과 모더레이터, 참관인단을 구역별로 구분하고 시민참여단은 분임토의조별 착석을 유도하고 좌석에는 비표 아이디어는 부착하지 않고 분임토의조에 인쇄된 스티커를 부착해서 동일존에서 자유롭게 앉도록 할 예정임. 로비운영계획임. 지하 1, 2층 로비에는 전문 경호요원을 배치하고 주요 이동동선마다 진행요원을 배치하여 화장실 및 분임토의장의 동선을 안내할 계획임. 진행요원이 응대하기 어려운 질문들에 대해서는 종합상황실을 운영할 예정임. 종합상황실의 주요 운영내용은 문의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응대, 1층 종합상황실에서 전체 방송 요청, 주요 물품 비치, 귀가 교통 변동사항 취합 및 응대 등임

분임토의장 계획임. 분임토의장은 지하 1, 2층을 활용할 예정이고, 지금 이벤트홀로 되어 있는 데에는 11개의 분임조가 들어가고 세미나1과 2실은 5개의 분임조가 들어가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분임조가 2개 내지 3개조로 운영될 예정임

마지막까지 수료를 하신 시민참여단 분에 대해서 인증서를 수여할 예정임

- (000위원) 버스수송이나 셔틀버스는 지난번 OT할 때와 크게 달라진 것이 없는지?
- (000위원) 네, 그 때 활용도가 낮은 몇 군데는 조금 운영을 줄였고 KTX 이용자가 조금 늘어난 것 같음
- (000위원) 토요일날 저녁 지역주민 인터뷰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 (000위원) 오늘 오후 12시까지 편집을 해서 보내준다고 했음
- (000위원) 찍었는지?
- (000위원) 현장 동영상은 찍었고, 지역 인터뷰는 중단 측은 찍었으나 재개 측은 찍지 못해서 현장 스케치를 찍고 다음에 양쪽 간접인터뷰를 했음. 그래서 공식적인 인터뷰가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것을 파악해서 텍스트로 PPT 형식으로 그렇게 동영상으로 해서 스크린으로 올라가는 것으로 구성했다고 들었음. 오늘 12시까지 오면 확인해보고 검토 후 활용하시고 수정할 것이 있으면 수정하시면 될 것 같음. 미래세대 토론회는 어제 저희가 봤는데 너무 긴 감이 있고, 중립적인 것을 고려해서 편집을 해야 될 것 같음
- (000위원) 편집된 동영상을 우리가 언제 한 번 볼 수 있는지?
- (000위원) 아직 양측 의견이 안왔음

- (지원단) 중단측은 동영상 부분을 대폭 수정해달라고 왔음
- (OOO위원) 그럼 우선 중단측 의견을 반영해서 작업을 해달라고 하면 안되는지?
- (지원단) 네
- (OOO위원) 미래세대 전체 (분량) 얼마였는지?
- (OOO위원) 전체촬영은 4시간이었고 그것에서 15분을 인터뷰하고 다시 편집을 했음. 그것을 보니 현장 동영상이나 지역주민 인터뷰 분량을 고려해서 상영시간을 줄였으면 함. 어차피 뒤에 또 Q&A 시간을 갖기로 했으니 동영상은 최대한 짧고 임팩트 있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음
- (OOO위원) 지역주민 인터뷰는 15분으로 가는 것인지?
- (OOO위원) 그것은 인터뷰가 안됐기 때문에 더 짧음. 그냥 현장 스케치에다가 ‘양측이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 이 정도만 들어갈 것 같음
- (OOO위원) 미래세대 토론회 말인데 주민 것은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양쪽 얘기를 똑같이 예컨대 구성이 2분, 2분 이런 식으로 보여주는 것인지?

- (000위원) 구성이 앞에 Q&A도 들어갔고 학생들이 질문하고 전문가들이 답변하는 것, 조별로 숙의과정을 해서 조별에서 나왔던 이야기들이 중단측, 재개측, 기타의견, 이런 것들이 들어갔고 다 끝나고 나서 또 학생들 개별 인터뷰를 해서 자기 의견을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이 단계별로 담겨있음
- (000위원) 두 가지임. 하나는 객관적으로 7대 3이다, 그러면 이것을 사실 그렇게 뽑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5대 5로 해야 하는 것이 맞는지임. 만약에 양쪽의 미래세대 의견을 어떤 말이 나오는지를 대표적인 것을 뽑아서 보여주자고 그러면 5대 5 해도 관계가 없음.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들이 어떤 의견이 주로 오갔는지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자고 한다면 균형이 아니라 7대 3이 맞는 것이고 어떤 목적이냐에 따라서 논쟁의 여지가 있음
- (000위원) 맞음.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너무 침예해서 반반 들어가는 것이 맞는 것 같음
- (000위원) 어쨌건 한 번 논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음
- (000위원) 그런데 학생들의 입장은 약간 .. (중단 쪽이 많았음)
- (000위원) 5대 5로 분량은 같더라도 아마 강도가 좀 다를 것임
- (000위원) 그날 분임조가 한 열 몇개 정도 있었는데 재개는 딱 한

조 나왔고 대부분 중단이 많았고 다음에 유보 조가 많았음. ‘잘 모르겠다, 이정도 들어가지고는 판단이 안된다.’ 이런 내용이 많았음

○ (간사) 재개 쪽 의견은 이번 미래세대 토론회는 학생들의 의견이 중요한 것이 아니냐, 그런데 전문가들의 의견이 더 부각되서 본래 행사의 취지에 맞지 않으니 질의·응답 부분은 다 빼든지 대폭 축소하고 학생들의 의견들을 공정하게 편집해달라는 것임

○ (OOO위원) 그것은 좋은 방법이고 일리가 있음

○ (OOO위원) Q&A 분량이 얼마나 되는지?

- (간사) 꽤 김

○ (OOO위원) 그것 말고 중단/재개 비율이 맞지 않느냐는 등 그런 얘기는 없는지?

○ (OOO위원) 그것은 그냥 가도 상관없을 것 같기는 함. 왜냐하면 미래세대들이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는 것임

○ (OOO위원)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맞을 것 같음

○ (간사) 그럼 이 정도 의견으로 해서 빨리 편집해서 회의 끝나기 전에 볼 수 있도록 하겠음

- (000위원) Q&A를 전부 뺄 것인지?
- (000위원) 조금만 남기시면 될 것 같음
- (000위원) 대표적인 것 한두개는 남겨야 참여단들한테 저런 식으로 했구나 하는 정도를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음
- (000위원) 현장 동영상이 중요한데, 그것도 12시쯤에 올 것 같음. 소통협의회에서 한 측은 엄청나게 반대를 했고 한 측은 ‘꼭 들어가야 된다. 그것은 현장방문을 대신한 것이다. 별도의 코너로 꼭 들어가야 된다.’는 이런 주장임. 그것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결정을 해야 할 것 같음
- (간사) 중단 쪽에 조금 설득을 해야될 것 같음. (재개 측은) 버스 타고 현장 가자는 것임. 또 하나는 시민참여단 자체가 요구를 하고 있음. 그래서 중단 측과 재개 측을 절충한 안이 동영상임
- (간사) 한 1, 2분짜리로 해서 별도로 개회식 부분에 넣어야 될 것 같음. 개회식 때 공론화 과정 경과 및 일정 소개하면서 ‘우리가 현장 가자는 의견도 있었고 했는데 여러 여건상 동영상으로 대체합니다.’ 하면서 (동영상을 보여주는 것임)
- (000위원) 개회식에서 상영하는 것은 미치는 영향이 클 것 같음
- (000위원) 앞 부분에 너무 부각이 될 수 있음

- (000위원) 차라리 타이틀을 ‘영상메시지’ 이렇게 바꾸는 것이 나을 것 같음. 영상메시지 하고 세 개가 짝막짝막하게 들어가는 것임
- (000위원) 첫번째 신고리 5·6호기 동영상 하고 미래세대, 지역주민 이렇게 순서를 하면 지역주민하고 현장 동영상이 섞이지 않고, 현지 동영상이 재개 쪽에 포커스됐다고 하니까 다음에 미래세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지역주민 인터뷰 들어가면 될 것 같음
- (000위원) OT 끝나고 나갈 때 차량 구역이 좁아가지고 그랬는데 어떻게 개선하는지?
- (간사) 이번에는 4대가 대기하고 4대에 탑승, 그 다음 대기자 4열까지 같이 부르는 것임.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8대분이 현장으로 나와서 가기 때문에 훨씬 속도는 빠름
- (000위원) 화장실 사용시간이 길고 대기줄이 길어서 화장실 안내를 곳곳에 배치해서 분산할 수 있게끔 안내표지를 해주면 좋을 것 같음
- (000위원) 그 층 말고 다른 층 (화장실)도 쓸 수 있는 것인지?
- (000위원) 그러함. 그런 안내를 조금 자세히 해주면 좋겠음
- (000위원) 종합토론회 할 때 질문자 배치는 다 정해졌는지?

- (OOO위원) 조별로 질문자들을 사전에 정해서 하기로 했음
- (OOO위원) 자리를 어떻게 배치해야 할지
- (간사) 그것은 12일날 방송진들하고 좀 구체적으로 해보겠음
- (OOO위원) 현장에서 정하자는 것인지?
- (OOO위원) 네
- (OOO위원) 대표자만 앞으로 빼든지 (해야 할 것 같음)
- (OOO위원) 나오기 쉽게 사이드로 하는 방안도 있음
- (OOO위원) 그 때 중간에서 하다보면 신분 노출 이런 것 때문에 카메라 앵글 잡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했던 것 아닌지?
- (간사) 네
- (OOO위원) 딱 내려와서 하는 것이 제일 좋음
- (OOO위원) 그것은 첫 세션만 그렇게 하면 되고, 나머지는 그냥 자리에 서서 하면 됨

- (000위원) (방송) 노출을 희망하지 않은 사람은 비표에다가 어떻게 구분하는 것인지?
- (000위원) 목걸이 띠 색깔로 구분함
- (000위원) 아까 일정표 중에 지역주민 및 미래세대 의견청취 이 부분 네이밍을 바꾸는지?
- (000위원) 네. 영상청취, 영상메시지?
- (000위원) 시민참여단에게 보내는 영상메시지
- (000위원) 다 괜찮으신지?
- (000위원) 네
- (간사) 일정표가 변동될 수도 있음
- (위원장) 세부 일정과 관련해서 추후 수정할 여지가 있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음. 이의 없으신지?
- (위원 전체) 네